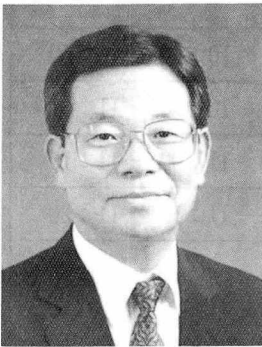


“무역에서 유통까지 EC 활용기틀” 마련에 일조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협회의 업종별 위원회 기구인 한국EDI협의회는 명칭을 한국 EC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에 손완수 한국무역정보통신 상무를 선임했다.

손 완 수 한국EC협의회 위원장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원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상무)



○ 무한경쟁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도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정보통신협회 산하에 관련업계가 참여하여 구성돼 있는 한국EC협의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EC협의회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인 EC(Electronic Commerce)의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EC는 전자문서교환(EDI)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인 정보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EC협회의 운영방안을 말해

주십시오.

—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이 날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하이웨이나 유럽의 정보고속화도로, 동남아의 싱가포르 IT2000, 필리핀 마닐라 2020 등 각국의 정보화 노력은 생존차원에서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우리도 초고속통신망을 비롯하여 EC, EDI, CALS, INTERNET의 도입으로 정보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EC협의회는 이 가운데 EDI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EC를 통해 각 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ED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수를 보면 미국이 10만 정도이고, 일본 6만, 프랑스 4만, 싱가포르 1만 3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1만여 업체에 불

과합니다. 이는 정부나 업계의 정보화 산업추진 노력과 비교해 불만족한 결과입니다.

EC나 EDI 도입이 적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국제경쟁력에서도 뒤져 있다는 셈이됩니다. 무한경쟁시대의 경쟁을 위해서는 노력을 배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EC위원장으로서 이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큰 산업으로부터 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EDI내지는 EC를 활용할 수 있는 기틀마련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C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종래 도입되어 온 EDI 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간 ED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실시해 오면서 체득한 경험으로 미루어 EC 도입에 있어 어려운 점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 어려움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EC나 EDI 정보화를 통한 업무개선이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돼 있는데도 수용이나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화 투자는 그 효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마련 아닙니까. 목전의 이익에 집착하여 결실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활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둘째, 협력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개선만 보더라도 규정이나 양식의 변경에 아주 인색합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상에 필요한 서식의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효력을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나 관련 서비스업체, 사용자 모두가 대응적인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서비스 업체측이 적용이나 활용상에 있어서 올바른 길잡이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부문만 하더라도 부가통신서비스 업체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설표준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큰 손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EDI의 경우 표준은 EDIFACT에서 제정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표준이므로 이의 채택이 유리합니다. 올바른 정보수용 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 EC협의회가 남은 올해와 내년 추진할 사업으로서 중점을

둘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 EC 또는 EDI의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민간업체가 산업정보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을 EC협의회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찾아내고 내년에는 이를 업계에 실질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이 가이드 하겠습니다.

○ EDI 서비스는 공급업자가 다수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들 사업자간 협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오늘에 이르러 어느 형태든 네트워크 서비스의 독점은 있을수 없습니다. 기간통신 서비스까지도 경쟁이 도입되는 상황아닙니까.

무역자동화망인 KT-NET은 국제EDI표준을 적용하여 처음 개발되었으며, KT-NET의 이용과 활용에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다. 상호 협력과 보완하는 관계이다.

한가지 분명히 해야할 것은 누가되든 어느 한 주체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투입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투자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 EDI나 EC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부문이 표준화 아닌가 합니다. EDI는 서비스 단위를 업종 혹은 산업으로 묶고, EC는 이들 전체를 통합하는 정보

기술 개념이므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부문이 표준화일 것입니다. 표준화 없이 EDI나 EC를 추진한다는 것은 나침반이나 해도 없이 항해하는 꼴이 될텐데요.

- EDI의 표준화는 세계적으로 UN산하 전자문서 표준화 기구인 EDIFACT에서 전담해 왔고 국내에서는 (사)한국EDIFACT표준원에서 갈을 일을 해 왔습니다. 이 기구가 과거 상공부 산하에 있을 때 예산지원이 불충분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데이콤에서 공동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무역자동화만을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EDI가 EC로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구의 명칭을 (재)한국전자거래표준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능도 무역관련 표준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관련 표준을 추진하기로 확대했습니다. 독립적이며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구를 내년초에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 손완수 한국EC협의회 위원장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창설멤버로 현재 상무이사이면서 아시아EDIFACT이사회 의장,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원장, 한국산업표준원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80년에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원도가 고향인 손 상무는 지난해 「한국무역업체의 EDI 도입 및 구현에 관한 연구」를 주제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무역협회에서 26년간 근무했다. ◆